

파열된 상악 전치부의 수복을 위한 심미적 치관연장술

정용탁, 서조영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외상으로 인한 치아의 파절, 심한 우식, 불량 수복물, 부분 맹출 혹은 치은 증식등에의해서 생물학적 폭경이 감소된 경우 보철적 수복과 심미적 요구에서 치관연장술이 필요로 하게된다.

이러한 경우, 임상 치관의 길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치관연장술은 주로 치은 절제술이나 골삭제를 동반한 판막술등의 외과적 방법으로 시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과적 술식은 부착 연조직과 경조직을 삭제하여 인접치주조직에 위해를 주어 심미성이 결여될 수 있고, 특히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 한 개 혹은 두 개의 치아에서 치관연장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미소선의 불균형, 인접치조골의 삭제, 치간유두의 상실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교정력을 이용하여 forced eruption을 시행한 후 외과적 치관연장술을 시행하는 방법과 치관연장술이 필요한 치아를 발치 후 원하는 위치에 재식립하는 일종은 의도적 재식술인 외과적 정출술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forced eruption 시행시에는 인접 치주 조직에 최소한의 손상을 주며 치주낭의 깊이 감소, 유리한 치관/치근 비율의 획득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외과적 정출의 방법은 경조직과 연조직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forced eruption의 단점인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보완하여 상악 전치부의 치관연장술에 있어서 예견성 있는 치료 방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술식들은 치근의 형태, 치근의 길이, 치주적인 상태 및 근관학적 상태, 치아 악궁관계, 보철적 요구도, 심미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이러한 상악 전치부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치관연장술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한 심미성을 고려한 치관연장술의 접근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